**프랑스 문학사 2 중간 정리**

\*필기 정리

1주차

-현대에 이를수록 ‘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발전하는 양상이 빨라진다. 100년에 5개의 사조가 나타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

-중세에 반대되는 개념은 “계몽주의”이다. 계몽주의란 꿈에서 깨어나다, 어둠속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세계는 ‘신vs 과학’ 이라는 거대한 두 헤게모니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에는 신이 우세해서 과학이 마녀사냥을 당한다. 이러한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바로 16세기의 르네상스(새롭게 태어나다)이다.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 때 다시 태어나고자 했던 시대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이다. 중세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저서들을 참고했다.

-17세기는 고전주의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이 고전주의 인데, 중세의 사회적 형태가 조그만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영토분쟁이 많았는데, 점차 이런 것들이 국경선을 확정하게 된 시기가 바로 17세기이다. 그렇게 많은 제도들도 정비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

2주차

-우리나라는 현대, 근대, 개항기, 조선, 고려 등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한다. 반면에 서구는 현대와 그 이전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나눈다.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중세’ 라고 불리는 시기가 1000년이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 상징주의 등 많은 문학사적인 흐름이 등장했다.

-대혁명 후에 프랑스는 공화정, 제정, 제2공화정, 제2 제정 등 공화정과 제정을 번갈아 가며 혼란한 격동의 시기를 겪는다. 대중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보이거나, 자신이 지지했던 정치체제가 바뀜에 따라 패배감, 안도감 등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산업화에 맞춰서 자신의 자본을 축적했던 쁘티 브루주아세력이다.

-시대별로 관심을 가지고 열망하는 문화 장르가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술, 판화였기에 당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세계 최고의 미술가들이 등장했다. 17세기에는 클래식 음악이었기에 베토벤, 모차르트 등 최고의 음악 거장들이 등장했다. 19세기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소설, 글 등이 유행했다.

-과거에는 작가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다. 신의 권한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감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vs과학의 대결 구도에서 과학이 점차 이기고 신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작가의 권한이 높아지게 되었다.

-19세기에 보급되는 대량 인쇄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작가들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했다. 귀족들은 작가들에게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저작권의 개념이 생기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경제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작가는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 더 이상 귀족들의 입맛을 맞출 필요가 없어졌고, 시장의 법칙에 따르게 된다. 대중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대중소설이 발전한 것이다.

-시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가장 급격한 발전을 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느끼게 되는 세기말적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대혁명 이후에 느끼는 것들도 세기말적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세기말적 고통을 잘 표현한 사람은 소설가들이었다.

3주차

\*19세기 중요 문학적인 흐름

-전기 낭만주의 – 신고전주의, 고전주의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문학적 흐름, 국가가 주도하고 하나의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전반적인 규범이 존재. 그 규범을 지켜야 좋은 작품. 그러나 이런 규범들이 점차 약해지면서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신고전주의가 탄생(그러나, 이런 문학사적 흐름을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다.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문화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구분을 단절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낭만주의때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국가, 사회를 기준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시선이 ‘나’, 개인에게 향했다. 이전에는 옳고 그른 것은 신이 결정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것은 모두 비슷하게 느끼는 것이다. 신이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생각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성(Raison)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낭만주의이다.

(전기 낭만주의, 낭만주의 모두 사조는 공통적인 것이다)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아주 세밀한 사실 묘사이다. 사진을 벤치마킹한 것이 사실주의이고, 자연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보다 더 면밀한 과학적 글쓰기이다.

-낭만주의의 핵심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땐 알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낭만주의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꿈”이다. “꿈”이라는 건 우리의 현실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관념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이전에는 꿈이나 이런 신비한 것들을 우리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두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René -** Francois-Rene de Chateaubriand)낭만주의 시의 특징: 감각에 호소하는 단어 들이 많다. 청각적, 시각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감각적 요소들이 고통스러운 지구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심정을 잘 설명해준다. 그리고 물, 바람, 나무 등 자연에 대한 묘사도 나온다. 르네가 자연속에서 산책하면서 교감을 하고 그런 감동들이 나온다. 종교에 대한 찬양 역시 보인다. 종소리,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구 등,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저 너머의 세계를 지향한다.